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임동욱



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도 막바지로 치닫하고 있다. 12일 치러지는 대구·경북지역 경선과 경기(15일), 서울(16일)지역 경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문재인 후보의 1위가 유력하다. 그동안 10차례의 전국 순회 경선에서 10연승을 거둔 문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50.38%를 기록, 과반을 넘겼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대 선거인단이 몰린 수도권 경선이라는 점에서 유동성은 있지만 문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 결선 투표 없이 대선행 티켓을 확보할 가능성마저 거론하고 있다.

문 경선 현장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물병과 달걀, 구두가 날아다녔고 곳곳에서 주먹다짐도 이어졌다. 대선 후보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경선 이후의 후유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 대

인 후보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가 당내 화합과 경선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당심(당원·대의원)과 모반심(모바일 선거인단)의 괴리를 주장하고 있는 비문(비 문재인) 후보들의 주장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경선 이전에 결선 투표시 당원 및 대의원 투표에 비중치를 주는 방안을 수용, 경선 이후의 후유증을 해소시키고 누가 후보로 선출되든지 함께 경쟁했던 예비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정권 창출에 매진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퇴하고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야권의 역량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외에 포진하고 있는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3기 민주당 정부가 창출된다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백의중군' 선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감한 쇄신이 먼저다

친노 핵심 인사들의 백의중군 선언은 당내 친노 패권주의 논란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권 창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대선 정국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부 창출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97년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권노갑, 한화갑 의원 등 동료동계 핵심 인사들은 정권 교체시 청와대와 정부의 정부직을 포함한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며 '백의중군'을 선언, 국민의 정부 탄생에 밑거름이 됐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맞고 있는 상황은 엄중하다. 그 어느때 보다 민주당의 피와 땀과 눈물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이 어떻게 경선 흥행의 부진을 씻고 정권 창출의 비전을 만들어 낼 것인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서울취재부)tuim@kwangju.co.kr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전제 조건

선 주자가 선출되더라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는 '화합'과 '쇄신'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4선 이상의 의원들이 지난 10일 전직 회동을 갖는다 하면 11일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에 대한 해소책을 모색했지만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당내 화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제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모색하고 있는 쇄신책도 썰질 방식에서 벗어나 당내 기득권을 뛰어넘어야 한다. 민주당이 시대정신을 담아 정권 창출에 나서기 위해서는 재창당 수준에 이르는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현재의 지도부와 당내의 친노 인사들의 기득권 포기도 민주당 정권 창출의 전제 조건이다.

경선 이후 현재의 지도부가 일선에서

경선 후유증 심각할 듯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이면에는 참담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한 편의 '각본 없는 감동의 드라마'라는 대박을 기대했던 전국 순회 경선은 모바일 투표 논란 등으로 흥행에 참패하며 사실상 '족박'을 쳤다.

여기에 친노(친 노무현) 패권주의 논란으로 오히려 당내 갈등이 심화된 것은 물론



강대석

한국씨는 인도의 동쪽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가상인물이다. 그의 세수는 올해 4345세이고 슬하에 7000만 명이 넘는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다. 한국씨의 가족들은 지금 남과 북, 두 편으로 나뉘어 살고 있다. 그의 영토는 100여 년 전에 간도일대를 외세에 의해 중국에 할양한 후, 현재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형태를 간에 집안싸움을 하는 것이 제일 속이 상한다.

또한 밖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 불리는 거족들에 의해 경제문제, 외교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최근에는

한국씨의 충고

한국씨의 소유인 독섬을 바다 건너 일본이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니 답답할 따름이다.

그래도 지난 8월에는 한국씨의 기본이 근래에 있어 가장 좋았다. 런던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그의 자손들이 금메달을 13개나 따서 세계 5위를 했으며, 축구에서는 독섬문제 등으로 유감이 많은 일본을 2대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역사상 첫 동메달을 따서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다.

한국씨는 금년 들어 작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5년마다 열리는 12월 대권계승대회를 앞두고 현재 몇 명의 후보들이 서로 가 적임자라고 나서고 있는 데, 과연 누가 적임자인지, 누가 대업을 잘 이어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칫 잘 못 뽑으면 나라가 시끄럽고, 백성들의 삶이 파국화될뿐더러, 지역간, 계층간, 남북 형제간의 다툼으로 나라꼴이 많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씨는 역대 대권계승자들을 떠올리며, 욕심이 과한 자들은 모두 운명이 순탄치 못했다고 회고한다.

초대 이박사는 4사5일 개헌으로 중임제한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했지만 집권 12년 만에 결국 하야일로 망명했고, 세 번째 박소장은 군사 쿠데타로 대권을 빼앗은 뒤, 삼선개헌으로 정권을 연장했지만 집권 18년 만에 불행한 최후를 마쳤으며, 그 다음 전소장은 80년대 초 서울의 붐과 5.18을 무력으로 짓밟고 대권을 강탈하여 7년을 집권했으나, 결국 갑작과 백담사 유배를 거쳐 지금은 백성들의 조소 속에 살고 있다며 혀를 찬다.

한국씨는 그래도 지난 15년간이 가장 살만 했다고 이야기한다. 오랜 역정을 극복하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심명섭

블라벤과 덴빈이 합류고 자나간 쓰라린 자국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공기가 분명 가을이 다가 왔음을 알리고 있다. 더구나 여름철 무더위와 태풍 다음에 찾아온 더할 수 없이 쾌적한 기온과 청명한 날씨속에서 독서와 사색을 통한 진리탐구를 위한 독서야말로 우리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도 귀중한 특권이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늘에서는 점보기가 추락하고, 땅에서는

인간은 자연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거대한 토네이도와 홍수가 일어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만연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등 지구촌에는 지금까지 상상영화 속에서만 보아왔던 장면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된다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우리도 장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나와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다행히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또한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환경보존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듯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의 사회적 문

제를 환경주의 차원의 문제로 만든 큰 사건의 시발점이 된 책의 출간이 있었는데 1962년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이 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의 출간이다.

'새 봄이 찾아와도 새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을 어찌 봄이라 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라면 우리의 생활이 제 아무리 풍요롭다한들 어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Silent Spring'(침묵의 봄)은 살충제의 남용에 의해 야기된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 농약이 단순히 우리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 이상의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즉 인류에게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태도를 재검토하도록 유인하고 '사회가 자연을 지배하기 보다는 협력해야 한다'는 호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카슨은 '숲속의 곤충들이 사라지고 새가 노래하지 않

는 봄이 인류에게 오고 있다'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병든 인간 사회의 형태와 인류 생존 위기를 철저히 경고함으로써, 인간에게 자연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더불어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현대인들의 생활을 더 이상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더 이상 품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과학기술을 옹호하고 남용할 때 그것이 환경과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로부터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2012년에 이른 시점에서,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저자가 우려했던 침묵의 봄은 재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에 앞서서 그런 경고가 있었기에 침묵의 봄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정당할 평가였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 등화기초의 계절을 맞아 과학고전(classical science book) '침묵의 봄'을 한번쯤 읽어보길 권장한다.

<목포대 중앙도서관 과장·행정학 박사>

유전자변형농산물 부작용·위험성 항상 경계해야

가정에서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로서 반찬거리를 살 때마다 항상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단다 수입 농산물이 그런 게 많다고 경고하고 데모도 하는 판국 아닌가. 거기다가 중국산 식재료에 납이 들어있고, 중금속 범벅인 게 우선 겁이 난다.

며칠 전 신문에서 우리나라 국민 80%가 "농수산식품을 못 믿겠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정도면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우리 소비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걸 따져보면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하는 것, 환경호르몬, 그리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다. 그리고 추가로 더하자면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오염 같은 게 있을 것이다.

이 중에 유해식품첨가물이나 환경호르몬,

중금속, 잔류농약 같은 건 그래도 나름대로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일벌백계로 웬만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GMO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 식탁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GMO의 재배가 금지되고 있고 GMO를 섞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수입한 콩이나 수입옥수수 원료를 하는 거의 모든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한다.

특히 옥수수와 콩은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이 지극히 낮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입한 콩으로 만든 고추장·간장·된장이나 식용유와 아이스크림, 과자 같이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옥수수로 만든 사료는 우리나라 모든 가축이 다 먹고 있지 않은가. 이 옥수를 통한 2차 오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식품에 어느 정도의 유전자변형 원료가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까마득한 입장에서 식품을 사먹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소비자보호 당국, 식품관리당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도 주고 철저히 규제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최순옥·광주시 북구 운정동

시설

광주시, 어등산개발 '범원 조정' 수용 안된다

해법을 찾지 못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조정이 테마파크 조성없이도 골프장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업자 측의 수용 가능성은 크지만 애초 협약에 명시된 골프장만 우선 개발하는 것을 반대해온 광주시로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법은 최근 광주시와 (주)어등산리조트에 보낸 '강제조정 결정서'에서 어등산리조트 비움으로 매입한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골프장(27홀)을 운영하는 경우 대중제(9홀) 운영수익을 사회복지·장학재단(신설)에 기부하도록 했다. 또 유원지 조성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되, 골프장 조성 사업시행자 명의를 현재의 도시공사에서 (주)어등산리조트로 변경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애초 계획된 어등산개발사업이 골프장만 조성되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반대해왔다. 또 '테마파크와 함께 완공한다'는 어등산관광단지협약에도 어긋나 특히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도 부답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조정이 수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어등산 테마파크사업은 광주시가 당초 기획해왔고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등산개발은 포병학교 포사격장으로 폐허가 된 부지를 시민휴식공간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광주시는 어등산개발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약의 취지와 조건을 지켜야 할 것이다.

경찰 못믿어 주민들이 자구책 나서다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에 이어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 등 아동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잇따르자 불안한 주민들이 마침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주민들이 경찰 실무자를 불러내 수사 진척 상황을 캐묻고 학생들의 등하곳길에도 동행하는 등 스스로 예방활동에 나선 것이다.

광주 광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수안동 북카페 '숨'에서 성폭행 사건 주민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허술한 치안시스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치안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으니 검문·검색 재실시, 방법 비상형 발표 등으로 요약되는 경찰의 관련 대책은 여전히 '찍שמ리'에서 나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행정학박사·시인>

단체협의회와 학생사랑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이 나서 등하곳길과 방과 후, 야간에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불안하게 귀가시키겠다는 자구책인 셈이다.

주민들까지 이렇게 나선 데는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성범죄는 늘어나는데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이들이 대로를 활보하면서 제2, 3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더 이상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건데 경찰은 성폭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배제하지는 않아야 한다. 방법 비상속에도 보란듯이 성폭행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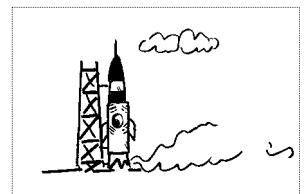
경찰은 지금까지의 허술하고 형식적인 순찰이나 검거 행태에서 탈피해야 하며, 순찰 인력 강화를 통한 물설 틈 없는 방법활동과 CC-TV 확충 등 치안시스템을 속히 개선해야 한다. 범인 검거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민이 나선다면 그건 직무유기다.

無等鼓

달과 화성에 대한 탐색이 시작된 이후로 이들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극히 몇몇 국가 또는 기관들이 외계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과학자들을 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인공 유물'이라 불리는 오파츠(OOPARTS : Out-Of-Place-Artifacts)의 존재다. 지난 1994년 나사(NASA)가 발사한 달탐사기 '클레멘타인'이 달의 뒷면에서 발견했다는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초거대 반투명타워(일명 유리궁전), 유럽 우주국의 화성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가 2004년 1월 촬영했다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비롯해 널리 알려진 오파츠만 해도 수백 가지다.

오파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들 오파츠가 지구 이외의 우주에서 문명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나사를 비롯한 우주대문명과 관련한 정보를 지난 수십 년간 숨겨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붉은색 일색의 화성사진은 필터를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실제 화성의 하늘은 지구처럼 맑은 파란색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혹이 커지고 구체화되면서, 지난 2009년엔 NASA의 과학 컨설턴트를 지냈던 리처드 C. 홀랜드가 '나사 그리고 그것의 역사'라는 책을 내고 "나사는 유물'이라 불리는 오파츠(OOPARTS : Out-Of-Place-Artifacts)의 존재다. 지난 1994년 나사(NASA)가 발사한 달탐사기 '클레멘타인'이 달의 뒷면에서 발견했다는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초거대 반투명타워(일명 유리궁전), 유럽 우주국의 화성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가 2004년 1월 촬영했다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비롯해 널리 알려진 오파츠만 해도 수백 가지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들 오파츠가 지구 이외의 우주에서 문명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나사를 비롯한 우주대문명과 관련한 정보를 지난 수십 년간 숨겨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붉은색 일색의 화성사진은 필터를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실제 화성의 하늘은 지구처럼 맑은 파란색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혹이 커지고 구체화되면서, 지난 2009년엔 NASA의 과학 컨설턴트를 지냈던 리처드 C. 홀랜드가 '나사 그리고 그것의 역사'라는 책을 내고 "나사는 유물'이라 불리는 오파츠(OOPARTS : Out-Of-Place-Artifacts)의 존재다. 지난 1994년 나사(NASA)가 발사한 달탐사기 '클레멘타인'이 달의 뒷면에서 발견했다는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초거대 반투명타워(일명 유리궁전), 유럽 우주국의 화성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가 2004년 1월 촬영했다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비롯해 널리 알려진 오파츠만 해도 수백 가지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들 오파츠가 지구 이외의 우주에서 문명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나사를 비롯한 우주대문명과 관련한 정보를 지난 수십 년간 숨겨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붉은색 일색의 화성사진은 필터를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72>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